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

–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

1.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

– 자활단기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9세로 확대(34세→39세, '19.1)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35만 명)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

–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25→30만 원, '19.4)

② 의료비 부담 경감

–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19.하반기)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

③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19. 10.7만 명, '18~'22. 40만 명 이상)

–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2년까지 34만 명 확충('19년 9.5만 명)

–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22. 9.7만 명) 확대

2.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①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

–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19.4, 1~3월분 소급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 원, '19.1),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21~42→5~20%, '19.1)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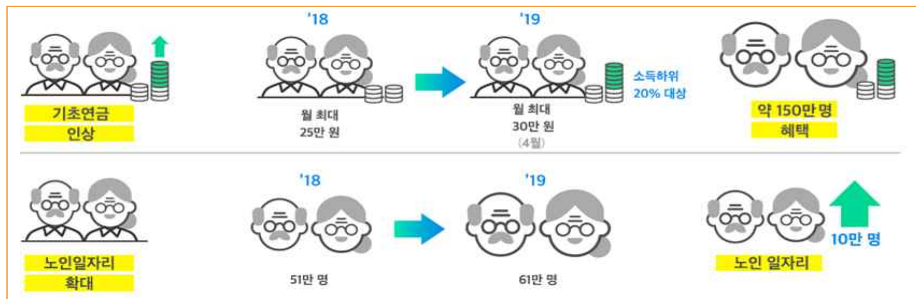
–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22년, 1,800개소)

–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19.7)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

② 노후생활 지원 강화

-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24→29.5만 명)

〈그림〉 달라지는 내용 및 기대효과



③ 장애인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19. 2,500명, ~'22. 1.7만 명) 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
-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④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 추진

-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19.6~)하여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4만 호, ~'22), 종합재가센터(시군구당 1개소, ~'22) 등을 확충

3.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① 예방·건강투자의 확대

-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70 → 100개소)
-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870→ 1,200개소 이상)

②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52→63개소),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
-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

③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
-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행('19.하반기) 등

02 시사점

-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줬다뺐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
 - 또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속도 또한 앞당긴다는 계획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한 의견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을 집중 치료하여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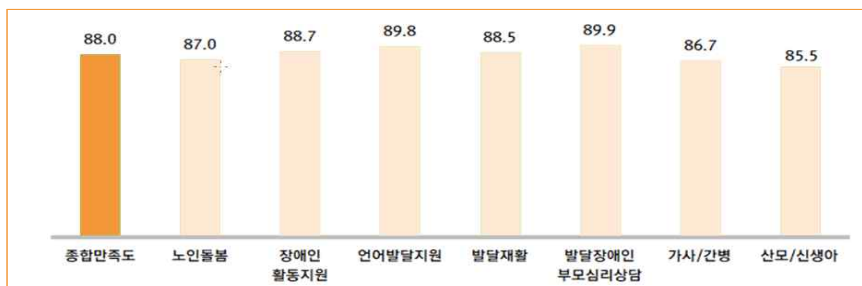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2. 2018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18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
 -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조사 결과, '18년 종합만족도는 88.0점으로 '17년 대비 1.2점 상승(86.8→88.0점)
 - 항목별로는 적시성(91.3점)과 친절성(91.3점) 점수가 가장 높고, 서비스의 기대수준 만족을 의미하는 욕구충족도가 86.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별로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이 89.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언어발달지원(89.8점), 장애인활동지원(88.7점) 순
 - 전년 대비 만족도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서비스는 언어발달지원(+3.4점)이며, 다음으로 노인돌봄(+2.1점), 가사간병(+1.7점) 순

〈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서비스별 만족도



*단위: 점

- 서비스 별 개선의견으로는 ‘이용기회 확대’, 욕구충족도와 관련된 ‘서비스 유연화’, ‘제공인력 자질강화’ 등이 주로 언급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에서 이용 시간 및 기간 연장 등 욕구충족도와 관련 있는 ‘이용기회 확대’ 요구가 많았으며,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에서는 이용자 위주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욕구충족도와 관련된 ‘서비스 유연화’ 가 가장 많이 언급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인력관리 강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등 전문성과 관련된 ‘제공인력 자질 강화(33.5%)’ 를 요구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개선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힘

02 시사점

-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이용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이용자 불만이 큰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서는 인력양성 및 훈련체계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품질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임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내 빈집 현황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도심 집중 현상 등으로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기도 내 시군별 빈집 현황을 살펴봄

- 2017년 기준, 빈집은 1,265천 호로 전년(1,120천 호)에 비하여 145천 호 증가
- 경기도의 빈집은 시도 중 가장 많은 195천 호로 전체의 15.4%를 차지
 - 경기도 내 빈집이 많은 지역은 평택(11.7%), 화성(7.8%), 용인(6.7%) 순
 -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빈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가 등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음

〈표〉 시군별 빈집현황(2017)

구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주거용
경기도	194,981	13,875	108,752	12,131	58,263	1,960
수원	12,890	148	8,239	580	3,834	89
성남	9,288	2,985	4,172	242	1,827	62
의정부	7,856	426	5,424	225	1,725	56
안양	7,155	192	3,756	556	2,610	41
부천	10,002	55	4,614	772	4,465	96
광명	2,092	7	1,490	68	515	12
평택	22,741	1,022	12,626	1,805	7,114	174
등두천	2,838	233	1,338	444	786	37
안산	11,058	45	2,902	1,299	6,756	56
고양	8,956	97	5,893	405	2,492	69
과천	25	9	8	-	6	-
구리	1,168	14	1,014	21	111	8
남양주	6,579	460	3,763	606	1,651	99
오산	3,546	18	2,199	140	1,152	37
시흥	6,330	12	4,912	133	1,233	40
군포	2,321	-	1,606	78	618	15
의왕	1,096	15	255	23	792	11
하남	1,884	6	1,763	41	68	6
용인	13,159	608	8,011	814	3,619	107
파주	5,221	460	2,813	376	1,421	151
이천	6,017	210	3,085	586	2,070	66
안성	4,335	311	2,858	443	666	57
김포	4,604	159	3,674	226	519	26
화성	15,275	668	11,182	451	2,835	139
광주	8,967	402	2,907	385	5,209	64
양주	4,868	67	3,822	117	797	65
포천	2,965	346	1,225	339	957	98
여주	3,986	1,041	1,679	192	1,002	72
연천	451	84	76	140	128	23
가평	3,219	1,602	510	405	599	103
양평	4,089	2,169	936	217	686	81

*자료 : 통계청 2017 주택총조사

*단위 : 호

- 앞으로 빈집은 더욱 증가할 예정으로, 실태조사로 DB를 구축하고 지역 재생과 연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빈집 이주 및 주택 정비 부분에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2019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2019. 3.15.(금), 10:00~12:00/누리센터 대회의실(210호) • 참석대상 : 200명(평가대상 기관 실무자 및 도 관계자 등) • 내용 : 평가지표 설명 및 질의 응답 • 문의 : 정책연구실 경영전략팀 (☎267-9399)

03 FACT CHECK

3.14일은 콩팥의 날,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은?

- 2006년 시작된 세계 콩팥의 날은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음
 - 콩팥(신장)은 주먹크기로, 몸 안쪽 척추를 사이에 두고 강낭콩 모양으로 쌍으로 존재
 -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액과 전해질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
- 콩팥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질병은 '만성콩팥병'으로, 3개월 이상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요독, 부종, 빈혈,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동반
 - 콩팥질환의 증상이 악화되면 혈액투석으로 1회 4시간, 주 3회 치료를 진행하며,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의 요법을 시행
-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저염식, 적절한 수분 섭취 등 올바른 식습관 유지가 필요
 - 3, 4단계의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양은 건강한 정상인과 비교해 절반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백질 과다 섭취를 제한
 - 염분이 과하면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물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제
 - 잡곡은 칼륨이나 인이 많아 배설능력이 떨어지는 만성 신장환자에게 해로우며, 지나치게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과 혈압이 악화되어 주의를 요망
 - 신장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혈액 순환에 좋은 옥수수수염차, 늙은 호박, 영양이 많은 검은콩, 시금치, 브로콜리, 미나리 등
- 신장질환은 말기가 돼서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콩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04 통계로 보는 복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19.3.7.). 잠복결핵감염자 10명 중 3명만 치료받고...

-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비율은 14.8%
 -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양성률이 높아져 감염의 위험요인은 고령, 저소득자임
-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31.7%이며, 완료율은 76.9%
 - 치료시작률은 10대가 38.2%인 반면, 70세 이상은 16.9%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 미시작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치료를 중단한 사유는 부작용(40.5%-주로 간독성 33.3%), 비협조(23.5%), 연락두절(14.6%)순

*단위 : %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잠복결핵감염자는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하지는 않음.